

건전한 청소년문화 창출을 위한 방송의 역할 제고

정 승 재*

오늘날 방송은 청소년의 가치관형성 등 그들의 사회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일정한 청소년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방송은 시청률경쟁과 상업성에 근거하여 청소년에게 유해가 될만한 선정, 폭력프로그램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각종 서적, 간행물 및 청소년관련 법률 등 문헌분석을 통해 일부 방송에서 노출된 비건전한 방송물의 실재를 확인하고 그 유해성을 증명하고자 했다.

아울러 방송이 청소년의 보다 건전한 정신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청소년을 위한 방송의 절대 시간을 늘려야하고, 공교육 커리큘럼에 미디어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며, 청소년방송 관련법률의 엄정한 적용과 벌칙 강화가 필요하다. 또 장기적인 과제로 청소년만을 위한 전문 방송매체 신설이 필요하다.

I. 들어가는 말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방송을 통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취득한다. 즉, 방송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위한 가치관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다. 현대와 같이 대중문화가 파상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 파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생활양식과 가치체계수립에 대한 방송의 역할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또 방송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정한 청소년문화를 포함한 대중문화를 창출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는 손쉬운 문화수용 매체이기도 하며, 정보화 사회 도래 이후 청소년들의 일차적 관계라 할 수 있는 가정과 학교활동에서 받는 작용 이상으로 그들의 의식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 정도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 교육학 박사(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순천향대학교 교육과학부 겸임교수

사회현상에 대한 청소년들의 변별력과 분석력이 성인들에 비해 미흡하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은 청소년에게 쉽게 파고들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방송이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건전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특별한 원칙과 타당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신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방송의 역할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방송이 이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청소년의 정신세계에 빈곤을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생활양태는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우리사회 전체의 황폐와 병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문체제기를 전제로 청소년들의 문화와 생활양식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방송의 역할 제고와 지향점을 설정한다는 목표를 두고 글을 이어간다.

1. 연구방법

각종 서적을 비롯한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선행논문 등을 인용, 분석하는 전형적인 문헌연구를 통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토론회 및 연구 조사보고서에서 발표한 설문조사를 인용하는 2차적 조사방법을 활용했다.

2. 연구목적

청소년의 성장에 있어 방송의 영향은 매우 크다는 전제하에, 청소년을 위한 방송의 지향점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 전체사회의 건전한 기풍조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해 청소년들의 정서, 사회, 심리적인 특성을 포함한 청소년문화를 연구하고, 그들의 방송접촉 행태 및 방송환경을 분석한다. 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방송의 역기능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방송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올바른 사고와 의식을 모아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한계

방송은 그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여 TV, 라디오, 비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의 일부, 심지어 유사방송으로 지칭되는 전광판 등으로까지 확대

· 해석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방송의 영향을 파악하는 이론적인 부분을 전반적인 방송의 테두리에서 찾고, 그 실제와 실례들은 TV분야에 한정하였다.

방송은 청소년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만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방송을 통한 지식, 정보습득 등 그들의 사회화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와 실례를 탐구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건전한 문화창출을 위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하에 부정적 요인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4.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전한 청소년문화란 어떤 것인가?

둘째, 청소년에 있어 방송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셋째, 청소년의 의식과 생활양식에 방송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청소년의 방송환경은 긍정적인가?

다섯째, 청소년문화의 건전화를 위한 방송의 지향점은 어떠한가?

II.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개념

1. 청소년의 범주

흔히 청소년의 개념은 중·고등학생 혹은 10대, 사춘기를 형성하는 시기 등으로 인식된다. 또 넓게는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시기에서부터 결혼의 적령기,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 중학교 재학시절부터 현대의 정치제도에 근거한 선거권을 가지는 시기 등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인간발달 이론에서는 성징의 변화에 근거를 두어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부터 완전한 성적 성숙을 가져오는 연령까지를 청소년기로 분류하기도 한다.

법률적 기준은 어떤가? 청소년관련 법률들은 그 규정을 각각 달리하고 있다. 1997년 9월 1일 공포된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구분한다. 또 미성년자보호법은 20세 이하를 미성년자로 규정한다. 한편 소

년법과 아동법의 기준은 각각 20세와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에서는 UN이 청소년의 연령 상한을 24세까지로 결의한 점을 존중하고, 청소년들이 독자적으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9세부터 24세까지를 설정해 두고 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연령 기준을 종합한다면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범주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에 있는 자로 인식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구수는 표 1과 같이 12,441,970명으로 집계된다. 이는 전체인구수 4,554만여명의 약 27.3%에 해당한다. 이것을 성별로 보면 남자 642만 5천여명, 여자 601만 7천여명이고 성비는 여자를 100으로 볼 때 남자는 106.8로 약 41만여명이 많다. 연령 구조별로 살펴보면 20~24세의 인구가 425만여명으로 청소년 전체인구의 34.2%로 가장 많다. 또 15~19세의 인구는 394만여명으로 31.7%이며 10~14세, 9세의 인구는 각각 29.1%와 5.0%에 해당하는 362만여명, 62만5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¹⁾

표 1 : 연령별 청소년인구 (1996년)

(단위 : 명)

연 령	계	구성비(%)	남 자	여 자	성비*
전 체	12,441,970	100.0	6,425,297	6,016,673	106.8
9 세	625,183	5.0	326,170	299,013	109.1
10세~14세	3,623,642	29.1	1,878,500	1,747,141	107.6
15세~19세	3,941,703	31.7	2,032,350	1,909,353	106.4
20세~24세	4,251,442	34.2	2,188,277	2,063,165	106.1

주 : 통계청(1997), 「장래인구 추계」. * : 성비는 여자 100명 대 남자의 비율.

2. 건전한 청소년문화

청소년문화는 청소년으로 분류된 연령층이 공유하는 의식과 생활양식, 언어양식, 사고방식, 가치관, 감정, 취향 등에 대한 총괄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개념하에서 청소년문화는 성인들이 공유하는 문화와 다른 청소년만

1)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문화체육부(1997), 「청소년백서」, p. 3.

이 가지는 문화이며, 청소년들을 위해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유형, 무형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²⁾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개념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하여 청소년문화를 정형화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법률과 프로젝트에 따라 별도의 원칙과 기준이 있고 청소년에 대한 각기 다른 의견과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청소년문화의 형성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즉, 청소년 개개인들의 자연발생적 천성에 따른 것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가정, 학교, 사회 등과 같은 1차적 접촉 대상의 영향에 따른 것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가족, 친구, 선생님 등과 의 상호작용에 따라 특성화된 것도 있다.

이렇게 개념화된 청소년문화에서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문화를 미숙한 문화로 보는 것이다. 어른의 시각에서 언제나 청소년들을 미숙하게만 보여지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이를테면 사회적 일탈과 어긋나는 행동이 하나의 문화로 반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이다. 둘째는 청소년문화를 비행문화로 보는 것이다. 항상 청소년들은 부모나 교사, 또는 성인의 감독 하에 두어야 한다고 보며 그들끼리 어울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에서 언제나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라고 인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기성세대의 배타적 의도에 따라 획일적인 기준으로 청소년을 특정화시킨 데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문화를 대항문화 또는 반문화로 보는 시각이 있다. 기성세대의 주류문화에 반하여 성인들이 형성해 놓은 기존문화와의 차별을 두는 것이다. 이에 근거한다면 그들의 문화는 이성적이기보다는 다소 감성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문화는 피상적인 기존의 틀에 대항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와 관련, James Coleman [1975]은 그의 저서 *The Adolescent Society*를 통해 청소년문화는 성인의 그것과 확연히 구분되고 그 방향이 매우 급진적이며 반항적이고 적대관계에 있다고 서술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를 새로운 문화로 파악하기도 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행동이나 차림새등에서 나타나는 참신하면서 기존의 그것들과 다른 독특한 생활양식들을 의미한다. 이같은 인식은 청소년의 새로운 문화로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와 생동의 요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도종수(1994)는 청소년의 의식적 특성과 청소년문화의 성격을 분석했는

2) 안귀덕(1997), 「한국청소년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3.

데,³⁾ 청소년들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의식구조와 생활양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그들만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또 청소년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복장, 언어 같은 것 이외에 정신적 가치를 강조하는 가치관과 이념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포괄성을 제시했으며 전체 문화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들었다. 이는 청소년문화와 성인문화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청소년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했는데, 각기 다른 청소년문화에 대한 시각 중에서 하위문화의 개념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개념으로 인식되는 청소년문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나의 정당한 가치를 설정해야 한다. 그것은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개념 설정이다. 이를 토대로 그러한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정의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각각 다를 수 있다. 다만, 건전한 청소년문화란 보편적으로 청소년 그들이 자아실현을 위해 보다 윤리적이고 합법적 가치체계를 가지고 인간의 사랑과 인본적 가치를 존중하는 공동의식의 결정체로 정의할 수 있다. 정범모(1995)는 이를 정의하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간은 학습으로 연마된 인지력, 예민한 인간적 감수성, 투철한 윤리의식, 국제화된 넓은 안목, 시련을 이기는 의연함을 지녀야한다고 하면서 문화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 개성과 자유,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⁴⁾ 또한 박의수(1995)는 투철한 윤리의식과 실천의지, 참된 개성을 바탕으로 자존과 긍지의 소유, 높은 지력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적 지성, 지성과 덕성을 강조하면서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가치지향을 제시한 바 있다.⁵⁾

3) 도중수(1994), “청소년생활 실태 및 의식조사연구”, 『한국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pp. 32-35.

4) 정범모(1995), “미래의 인간과 교육”, 『교육난국의 해부』, 나남, pp. 393-423.

5) 박의수(1995),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방향과 사회 교육적 과제”,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26집, 강남대학교, pp. 434-436.

III. 방송과 청소년문화

1. 청소년과 미디어효과

방송매체를 포함한 미디어가 인간의 성격 혹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미디어 효과에 대해서는 몇가지의 고전이론이 있다. ‘정화이론’*Catharsis Theory*,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on Theory* 등이 그것이다. 이 이론들은 인간발달 이론의 정신분석학, 행동주의, 인지발달이론과도 많은 연관이 있다. 즉 이들 양 진영의 이론들은 각 변인들에 의한 인간의 변화과정을 집중 연구했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를테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본능적 요구의 효과, 행동의 빈도, 단계와 관련된 변형등에 있어 논리적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이론들은 미디어에 의한 인간행동의 발생과 변화를 설명하는 기초로 일반화되어 있다. 또 인간의 공격행동과 성향 등에 대해 미디어 효과를 실증하는 이론으로도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먼저 정화이론에서는 인간이 기본적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반복되는 요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정신분석이론과 그 논리적 틀을 같이한다. 특히 Sigmund Freud가 강조하는 갈등의 원천은 본능적인 것이며 발달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원리와 흡사하다. 이 정화이론에 따르면 선정, 폭력적 장면의 시청이 성욕과 공격욕을 발산시키기 때문에 그후 실제적인 성행동이나 공격행동은 감소한다고 한다. 이러한 정화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촉구시합을 한다거나 TV에서 폭력장면들을 시청함으로써 공격적인 에너지가 발산되어 실제로 폭력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선정적인 프로그램 혹은 포르노그라피등에 노출되면 성적 흥분이 감소된다고 한다. 성범죄 등 부정적 행동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주장들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리에 반하는 결과가 자주 나타나는 것이 이 이론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를테면 TV를 통해 프로야구나 농구를 시청하다가 오히려 밖에 나가 이를 실제로 해보고 싶은 발산욕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이 반박의 근거가 된다. 또 심야시간에 여성의 과다노출 등 선정적인 화면에 노출될 경우 생리적 흥분수준을 배가시켜 오히려 공격적 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점도 설득력 저하를 뒷받침한다.⁶⁾ 이는 곧 사회학습이론의 등장 근거가 되는 것이다.

사회학습이론은 발달은 인간발달이 학습원리에 따라 성취되어지며 실제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행동주의이론과 연관이 크다. 이 이론은 선정, 폭력성 장면의 시청이 오히려 그러한 행동을 더욱 촉발시키는 학습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서 기인한다. 이 이론은 TV화면에서 방영되는 폭력성 혹은 범죄행위를 쉽게 모방하여 실제 행동에 옮기는 현상을 상정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이론을 주장한 Albert Bandura는 “아동들은 단순히 폭력장면에 노출되는 것 자체로 인해 범죄행동을 인지적 과정을 거쳐 모방하게 되며 그 범죄적 행위가 조성될 수 있는 기간까지 행동을 억제한다”⁷⁾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성격과 행동에 공격성 요소가 많은 청소년에 있어 폭력프로그램은 기존의 공격성을 더욱 강화시켜 프로그램 시청후 더욱 공격적 행동이 관찰되는 점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적절한 실례를 한 일간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영화와 TV를 통해 청소년들은 폭력이 복잡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메시지를 받는다”면서 지난 1998년 3월 미국의 알칸소지역에서 발생한 중학생들의 총기난사 사건이 TV에서 범죄행위를 모방했을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⁸⁾ 우리나라 TV프로그램의 재연(再演)장면이 청소년의 모방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정화이론 및 사회학습이론 이후 등장한 사회인지이론은 “인간 발달이 유기체내에 존재하는 심리적 구조들에 동화되거나 심리적 구조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지며 유기체는 이 과정에서 능동적 역할을 한다”⁹⁾는 인지발달이론과 유사점이 많다. 즉,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학습된 프로그램에 의해 통제 받는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이 이론은 폭력적 영상물을 어린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시청하는 것이 정화효과나 폭력행동의 일시적 모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일생동안 내면에 잠재되어 행동과 인지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이론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을 포함한 인간은 방송 등 미디어의 영향으로부터 의식, 무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명숙(1996), 「청소년생활환경개선종합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p. 22. 재인용.

7) Albert Bandura(1978),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NewYork, p. 586.

8) 조선일보, 1998년 4월 15일자, 사설.

9) Neil J. Slakind(1985),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Wiley & Sons, p. 9.

2. 청소년과 방송

앞의 청소년문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은 성인과 대별되는 특징적 의식을 가진 계층으로서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혼란과 불확실한 정체성을 극복하는데 전통적인 소규모 집단, 이를테면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 종교기관 등의 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첨단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사회구조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감에 따라 이러한 전통적 사회조직들의 영향력이 차츰 줄어들게 되었다. 반면 현대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정신적 혼란과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을 친구나 접근이 손쉬운 대중매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청소년에 대한 방송의 영향력이 매우 커져가는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은 텔레비전에 가장 집착하는 수용자계층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텔레비전의 접촉은 초기 청소년에 해당되는 만 10~14세 사이에 절정을 이루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⁰⁾ 방송이 청소년의 생활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다. 방송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바람직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청소년의 일탈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물론 미디어효과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화이론과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다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TV에서 규칙이나 법률 등을 위반하는 내용을 시청하게 되면 그와 같은 일탈 행위를 모방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고¹¹⁾ 또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방송영향의 정도는 수용자, 특히 청소년의 사회적·심리적·문화적 특성과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여러 차원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전병재는 방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의 다양한 가능성을 표 2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¹²⁾ 이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그에 따른 수용상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의 내용이나 과정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10) Comstock, G. et. al(1978), *Television and Human Behavior*, Columbia Univ. Press, p. 47.

11) Stein, G. H & J. H. Bryan(1972), "The Effects of a Television upon Rule Adoption Behavior of Children", *Child Development*, 43, pp. 268-273.

12) 이경자 외(1993), "청소년방송프로그램 현황 및 제작환경 연구", 「청소년과 방송」, 언론연구원, p. 11.에서 재인용.

표 2 : 방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의 유형

구 분 프로그램	방송의 내용	영향력 요 인	심리과정	행동의 종 류	행동의 특 성
만화·코미디	표정, 몸짓, 말씨	자극성	조건화	무의식적	즉흥적
쇼·드라마·영화	음악, 머리모양, 의상	매 력	동일시	표출적	감성적
뉴스·특집·시사물	정보, 해석, 판단	신뢰도	내면화	합리적	이성적

한편 이명숙은 폭력적인 성표현물은 명백하게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국내외의 선행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고 있다.¹³⁾ 첫째, 폭력적인 성표현물의 시청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강간의 신화 *Myth of Rape*를 쉽게 수용하고 성폭력에 둔감화된다. 둘째, 성폭력의 피해자가 폭력적인 성행위를 즐기는 것으로 묘사되었을 때 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셋째, 폭력적인 성표현물은 강간범들과 일반 남성들에게 성적 흥분을 유발시킬 수 있고, 흥분의 정도는 여성에 대한 지배욕 및 적대감과 상관이 있다. 넷째, 폭력적인 성표현물은 실험실에서조차 여성에 대한 성 폭력을 일으키기도 한다. 다섯째, 여성에 대한 적대감, 대인적인 폭력의 지배, 성 폭력에 대한 흥분, 성적 경험 모두가 성폭력 행동들과 상관이 있으며, 성폭력의 발생은 이러한 요인들의 집합에 의해 잘 설명되거나 예언된다고 정리하면서 폭력적인 성표현물의 유해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일반적인 폭력 프로그램도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정보사회가 도래한 오늘날 방송, 특히 텔레비전은 바깥세상의 모습을 내다보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즉, 현대인들은 텔레비전이라는 창을 통해 외부세계의 현상을 인식하고 확인한다. 동시에 텔레비전은 그것이 전달한 내용과 형식에 특정한 뜻과 의지를 부여함으로써 프로그램 내용의 모든 것을 사실화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기능들을 통해 텔레비전은 수용자들에게 오늘의 세상의 모습, 즉 사회현실을 정의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텔레비전은 바로 세상을 내다보는 ‘최초의 창’ *Early Window*인 셈이다. 청소년 수용자들에게 있어 방송은 세상을 인식하고 확인

13) 이명숙(1996), 「청소년생활환경개선종합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p. 26, 181.

하는 창인 동시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가정교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른바 ‘창문’(窓論)과 관련하여 TV라는 창문은 그 제한된 크기 때문에 시청자로 하여금 제한된 만큼의 세계만을 볼 수 있도록 시야를 한정시키고 있고 또한 그 성격상 창문 밖의 소음과 열기, 냄새, 흥분, 즐거움, 미움 등을 모두 차단한다. 즉,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갖가지 숨결들이 창문에 의해서 막히고 마는 것이다. 결국 시청자들은 창문을 통해 죽은 세계를 보면서도 마치 살아 있는 세계를 보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 또 창문에 칠해진 색깔로 인해 이미 채색되어진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바깥세계는 매스미디어의 창문이 빨강하다고 알려주면 빨간 것으로 인식되고 푸르게 표현하면 푸른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실지의 세상은 푸르더라도 매스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보는 세계는 빨간 것일 수도 있고 검은 색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¹⁴⁾ 이른바 TV는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바보상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사회적 현상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의 TV영향력에 대해 박영상은 요즘 청소년들을 한마디로 ‘텔레비전 아이’라고 칭하면서 모든 사회적 규범이 텔레비전을 비롯한 방송매체에서 부터 시작한다고까지 했다. 또 그는 텔레비전과 청소년의 문제를 논의할 때 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시간대의 확충, 또 이들 프로그램제작 과정에 있어 건전한 의식을 유도,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¹⁵⁾ 그러나 우리의 방송현실은 이러한 당위만을 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지나친 상업주의가 강조되어 시청률만 염두에 두는 방송제작과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이 날이 갈수록 상업주의에 빠져 저질, 퇴폐적 내용으로 경쟁에 의한 시청자 끌어 모으기에 혈안 되고 있다는데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방송사가 시청률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경영구조를 무시할 수 없지만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체고라는 원칙에 비추면서 그 정도가 심하다는 생각이다.

3. 청소년의 방송환경

방송법을 비롯한 청소년방송 관련 법률에서는 청소년을 방송의 악영향으로

14) 최창섭(1997), “청소년 유해미디어 환경의 실태와 개선방안” 『청소년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2집』,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p. 249.

15) 박영상(1994), 『청소년의 문화풍속도』, 청소년대화의 광장, p. 23.

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몇가지 조항을 두고 있다. 방송법¹⁶⁾ 제14조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방송내용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제20조에서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사항’, ‘가정생활의 순결에 관한 사항’,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을 두어 방송의 건전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에 방송심의 세부기준에 따른 청소년보호 관련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¹⁷⁾ 케이블 TV의 경우도 종합유선방송법 제34조를 통해 이와 유사한 내용의 심의 규정을 두어 청소년을 위한 방송의 건전화를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방송사는 그 규정 설치의 취지를 간과하고 있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6년 한해동안 방송위원회가 청소년프로그램 또는 일반 성인대상의 프로그램일지라도 청소년에게 역

16) 1987년 11월 28일에 제정되어 그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97년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안을 정부와 여당(당시 신한국당)에서, 또 국회의원회와 자민련에서 공동으로 성안하여 각각 국회에 제출되어있으나 여·야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워 1998년 5월 현재까지 계류되어 있다.

17) 그 세부조항은 다음과 같다. : - 인명의 존중(제34조) : 살인, 고문, 폭력, 사형, 부녀자 및 아동의 학대, 인신매매, 유괴 등 인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행위를 긍정적으로 묘사해서는 아니된다. - 노동의 가치 존중(제35조) :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부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 장애인 등의 보호(제36조) :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 소외인에 대한 보호. - 인권침해금지(제37조) : 부당한 인권 침해 금지. - 공경심과 우애심(제42조) :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른을 공경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청소년의 정서보호(제43조) : 방송은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는 괴성이나 소란스런 행위 등의 화면이나 음향을 억제하여야 한다. - 생활 수준의 표현(제44조) :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생활수준 등의 격차로 벌어지는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모방성, 사행심(제45조) : 초인적 행위, 실령술 등 어린이가 흉내내서는 아니될 내용은 되도록 삼가하여야 하며, 사행심이 조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선규범의 존중(제49조) : 불건전하고 부도덕한 남녀관계를 주로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성과 관련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 폭력 및 폭력묘사(제50조) : 지나친 충격 또는 불안감 조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잔인하거나 비참한 내용 및 미성년자의 범죄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 허례와 사치(제54조) : 허례허식이나 사치 및 낭비 풍조를 조장해서는 아니된다. - 비과학적 생활태도 조장금지(제55조) :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 태도를 조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습담, 사담 등(제56조)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잡담이나 공중에 유익하지 않는 사담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성기, 성병 등의 표현(제57조) : 성기, 성병 또는 피임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는 지속적인 표현 등으로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언어생활(제59조) :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기능을 줄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적발한 사례는 총 147건에 달해, 평균 2~3일에 한건 꼴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청소년에게 비교육적이라고 판정한 것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생활의 순결성, 올바른 가치관, 규범정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재를 내린 건수가 24건에 달했다. 이중 상기한 법률조항에 적용될 수 있거나 위반 여부에 근거될 만한 중대한 위반 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어렵지 않다. 매년 이에 상응하는 위반 건수가 적발되는데도 방송사의 이행의지가 미흡함에 따라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추세에 있음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표 3 : 청소년관련 방송내용 심의사유별 현황

(단위 : 건)

제 재 사 유	보도교양			연예오락			총계
	TV	라디오	계	TV	라디오	계	
충격·불안감·공포감 조성	17		17	6		6	23
폭력·과다묘사·미화	5		5	18		18	23
범죄수법의 구체적, 과다묘사	5		2				2
바른 언어생활 저해				10	1	11	11
선정·퇴폐·외설적 표현	5		5	7		7	12
어린이·청소년에게 비교육적 내용	3	3	6	23		23	29
어린이·청소년에게 부적합한 배역				1		1	1
어린이·청소년 모방심리 자극	7		7	7		7	14
가정생활의 순결성·올바른 가치관·규범정립 저해	11		11	13		13	24
방송시간대 부적합	2	1	3	5		5	8
합 계	52	4	56	90	1	91	147

주 : 위 표는 사유별 제재횟수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1건의 제재에 대하여 복수의 위반 사유가 적용될 경우 그 각각의 위반사유를 개별건수로 간주한 것임.

(문화체육부(1997), 「청소년백서」, p. 428. 참고.)

또 방송법에서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제5조)을 두었는데 그 중 6항은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기여하여야 하며, 음란, 퇴폐,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여 법률의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특히 10대를 대상으로하는 쇼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성인 유흥장을 방불케하는 요란한 조명과 무용수들의 현란한 울동으로 꾸며지고 있고, 드라마 역시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가 민망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룬다는 비난이 있다. 1998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어린이 시간대에 부적합한 내용으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이 KBS를 비롯한 공중과 3사를 비롯한 지역 민영방송에서 모두 15건¹⁸⁾이나 된 것으로만 보아도 방송사의 어린이 혹은 청소년을 위한 배려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서도 방송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만들어 두었다. 이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 담배, 본드 등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간행물은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포장을 해서 팔아야하고, 방송의 성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소년 시청불가” 표기 준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미성년자 보호법과는 적용 연령을 20세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춘 것이 특징 중의 하나이다. 청소년보호법 제정 이후 다행히 이 법을 위반하여 의법 처리된 사례는 없다. 다만, 방송법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97년 12월 26일, 한 상업방송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중 가족 시청시간대에 동성애를 다룬 내용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고지방송 의무준수를 방송사에 통보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이 프로그램은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와 윤리의 수준차이를 노정 시킨 것으로 우리의 전통적 질서에 배치된 것으로 판정됐으며 특히 내용 중 노골적 동성애 표현은 청소년의 불건전한 의식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하여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방송위원회는 1995년 1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24부작으로 방영한 한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재방송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이는 폭력배들에 대한 가치관 오도, 폭력을 미화하거나 폭력행위 묘사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판단과 함께 어린이·청소년품성과 정서함양에 유해, 위법행위를 방조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토록 방송사에 통보한 바 있다.

18) 조선일보, 1998년 6월 1일자, “TV의 어린이 푸대접 여전”.

한편 방송법시행령 제29조(방송순서의 편성기준) 2항에 따라 교양프로그램 방송을¹⁹⁾ 1주간 40%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바람직한 방송편성을 기하여 청소년을 위한 일련의 취지라고 해석 될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교양방송이외의 보도 및 오락방송 편성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방송사의 준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KBS1을 제외한 방송 3사 모두가 오락 프로그램을 과다 편성하는 등 대통령령을 위반하고 있음(MBC는 96년 가을)이 표 4의 통계에서 확인된다.

표 4 : 전체시간대 TV 3사 보도·교양·오락 편성 현황

채널	보도		교양		오락	
	'96 가을	'97 봄	'96 가을	'97 봄	'96 가을	'97 봄
KBS-1	(31.8%) 2,060분	(34.3%) 2,225분	(43.9%) 2,845분	(40.3%) 2,610분	(24.3%) 1,575분	(25.4%) 1,645분
KBS-2	(11.8%) 765분	(9.5%)* 615분	(29.0%) 1,880분	(32.5%)* 2,105분	(59.2%) 3,835분	(58.0%)* 3,760분
MBC	(21.8%) 1,410분	(21.8%) 1,415분	(27.9%) 1,810분	(29.6%)* 1,915분	(50.3%) 3,260분	(48.6%) 3,150분
SBS	(12.6%) 820분	(13.8%) 895분	(32.9%) 2,130분	(32%)* 2,075분	(54.5%) 3,530분	(54.2%)* 3,510분

주 : 방송위원회 발표, 총방송시간 (6,480분/주) * : 편성기준 위반 부문.

표 4에서와 같이 1997년 봄 개편 이후의 편성 비율로 보면, 그 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교양부문의 법정 편성기준 미달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락부문의 편성비율이 1996년 대비 약간 감소됐고, MBC의 경우 오락프로그램 비율을 50% 이하(48.6%)로 낮춰 기준 준수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KBS2와 SBS의 경우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각각 58.0%, 54.2%로 시행령을 위반했다. 그리고 그 동안 지적 사항이 없었던 보도부문의 편성기준 위반이 KBS2에서 나타났다. 물론 장르구분에 따른

19) 교양프로그램이란 다큐멘터리, 대담 및 토론,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화 및 인형극,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퀴즈 및 게임, 학습 프로그램, 생활정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말한다.

문제가 없지 않다. 방송사마다 보도, 교양, 오락의 장르 구분에 있어 작위적 판단에 따른 통계라는 점이다. 이를테면 스포츠중계를 오락으로 볼 것인가 혹은 보도로 볼 것인가, 사극을 오락으로 구분할 것인가 아니면 교양으로 볼 것인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위원회 등과 같은 법정기구에서 장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프로그램의 주기능을 면밀히 심의하는 과정을 방송사 자체의 기준을 두는 것보다 법정기구에서 하는 것이 공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송사에서 집계한 편성비율과 방송위원회에서 산정한 것이 상이한 경우가 장르, 방송사를 불문하고 노정된 바 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을 두어 법률로 정한 편성비율이 엄격히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1997년 5월 프로그램 개편이후 KBS1의 경우 방송사 자체에서 발표한 오락프로그램의 비율이 18.2%였으나 방송위원회의 집계는 25.9%였으며, MBC의 경우 역시 오락장르가 41.2%로 발표됐으나 위원회의 집계는 무려 49.0%로 집계된 바 있다. SBS 또한 교양부분을 43.4%로 집계했지만 위원회 기준으로는 40.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방송사의 작위적인 편성기준이 악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방송위원회에서 정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상기한 편성비율을 위반했을 경우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 편성자 혹은 방송사에 내릴 수 있는 벌칙조항이 없다는 것도 편성비율을 위반하거나 작위적인 판정을 내릴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성기준 무시는 방송의 시청자 접촉기회가 가장 빈번한 주 시청시간대에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원회에서 규정한 주 시청시간대의 의미는 청소년이 가장 많이 TV를 볼 수 있는 시간대로 간주될 수 있기에 이 시간대의 편성기준은 대단히 중요하다. 표 5에서와 같이 주 시청시간대에 KBS1을 제외한 3개 채널이 모두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 시청시간대의 오락프로그램 편성 경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S2와 SBS가 공히 73.8%로 매우 높은 편성비율을 보여 두 채널의 오락부분 편성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BS는 주시청시간대에 교양프로그램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표 5 : 주 시청시간대(오후7시~10시30분)의 TV 3사 편성 비율

채널	보도		교양		오락	
	'96 가을	'97 봄	'96 가을	'97 봄	'96 가을	'97 봄
KBS-1	41.8%	48.0%	25.5%	19.3%	32.7%	32.7%
KBS-2	7.8%	15.0%	8.9%	11.2%	83.3%	73.8%
MBC	22.4%	27.6%	8.5%	5.4%	69.1%	67.0%
SBS	28.9%	26.2%	—	—	71.1%	73.8%

주 : 방송위원회 발표, 총방송 시간은 1,470분

다음은 청소년방송의 내용과 질에 대해 파악해 보자. 공영방송이나 민영방송할 것 없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송내용으로 프로그램의 저질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건전하지 못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의식을 나약하게 하거나 소비지향으로 몰아 청소년문화의 오염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된다. 감각적이고 비정상적인 방송행태가 마치 대중문화의 선진화로 오도케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우리의 정체성을 간과해 문화적 자유주의로 착각하게하는 것으로 왜곡시키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서울 YMCA 좋은 방송을 위한 시청자 모임’은 청소년 대상 TV쇼에 대해 청소년의 행동과 의식에 좋지 않은 영향을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1997. 11)한 바 있다.

“첫째, 청소년 대상 오락 쇼들이 상호모방으로 동일한 시간에 유사한 구성의 프로그램들로 획일화 되어있다. 둘째, 전체적으로 소란하고 시끄러운 소리, 현란한 조명과 무대, 과장된 몸짓, 방청객의 고함소리 유도 등 10대의 정서를 선동적이고 흥분된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셋째, 일회성 스타 지향주의의 신변잡기류, 연예정보와 패션, 소비문화로 일관된 내용으로 알파한 상업주의와 결합하고 있다. 넷째, 성인대상 오락 프로그램의 외설성이 가족 시간대까지 점령하여 성을 상품화하고 폭력을 일상화시킴으로써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 스타의 공동 MC 진행방식과 이로부터의 중복출연 현상이 심각하며 이들은 무차별하고 저급한 언어사용과 사적인 대화로 프로그램 저질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섯째, 프로그램의 부분적인 요소들은 물론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미국 청소년들의 일상을 배경으로 하는 외화, 뮤직비디

오 등이 방영되고 있어 청소년문화의 외래 지향성 또한 심각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오락, 코미디, 퀴즈쇼, 가족쇼, 연예정보 등 유사한 오락 프로그램들이 평일 오후 7~8시대, 주말 오후 5~7시 사이의 황금 시간대를 장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광명세는²⁰⁾ 요즘의 TV쇼가 10대 청소년위주로 제작되고 내용이 건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은 황금시간대에 집중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범람을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첫째, 동일 시간대 유사포맷 프로의 중복 편성으로 채널간의 획일화 현상을 가져왔고 둘째, 10대 청소년에게 선호되는 소수 인기연예인들의 중복·과다 출연으로 프로그램간의 차별화가 불가능해졌으며 셋째, 10대 청소년에게 소구되는 내용을 강조하게 되면서 감각적·자극적인 내용이 무절제하게 경쟁적으로 다루어져 윤리적 혹은 전통적 정서 측면에서 비난의 소지가 농후하며 넷째, 10대들의 정서만이 강조되고 그들만의 분위기가 왜곡되어 부정적으로 제작됨으로서 자연히 기성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을 상실케하는 편성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 위주의 프로그램은 건전한 레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인의 새로운 활력의 재창출과 재생산을 도모해야 한다는 TV의 긍정적 역할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이 지향해야 할 공공성 또한 간과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같은 현상은 국민전체의 건전한 오락과 휴식 향유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상업성만이 강조되는 시청률 제고에 급급한 나머지 무분별한 외국프로그램의 모방을 일부 방송사측이 공공연하게 송출하고 있음은 국민 정서적 차원에서 상당히 심각한 폐해로 지적된다. 이러한 외화남용 현상은 방송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늦었다고 할 수 있는 한국 TV가 그 태동기부터 미국, 일본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방송물을 제작하여 왔던 사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고 현재와 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특정 국가에서 방송되고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형식을 베껴 국내의 시청자들, 특히 10대 청소년에 그대로 노출시킨다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에도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 광명세(1993), “국내 청소년 대상 방송의 현황과 과제”, 『청소년과 방송』, 한국언론연구원, pp. 115-116.

4. 청소년의 방송이용 행태

청소년들이 정보취득의 수단 혹은 여가 선용의 일환으로 TV를 포함한 방송매체의 접촉이 빈번하고 자유롭다. 실제로 1996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1990년과 1993년에 각각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인구중 90.8%와 91.4%가 TV를 시청하고 있으며 시청시간은 1주당 각각 13.6시간과 13.8시간으로 나타났다.²¹⁾ 이는 하루에 2시간에 거의 육박하는 것이다.

표 6과 같이 1997년 9월에서 10월 사이 서울의 남녀 초·중등학생 1052명을 대상으로 TV 시청행태 조사분석에²²⁾ 따르면 그들은 대체로 평일의 경우 2시간 2분 정도를, 토요일의 경우 3시간 57분, 일요일은 4시간 55분을 TV시청으로 여가를 보낸다. 초등학교 학생이 중등학생들보다 대체로 많은 시간을 시청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 학습시간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학교수업이 없는 일요일인 경우 전체적으로 무려 5시간 내외의 시간을 시청함으로써 이들 청소년에 있어 TV가 여가 선용의 절대적 대체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90년과 93년의 평균 2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표 6 : 초·중등학생의 TV시청시간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전 체
평 일	2시간 42분	2시간 19분	1시간 30분	2시간 2분
토요일	4시간 14분	4시간 32분	3시간 22분	3시간 57분
일요일	5시간 23분	5시간 36분	4시간 55분	4시간 55분

이같은 빈번한 TV시청 기회와 그들이 접촉하는 내용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TV의 폭력과 선정성에 초·중등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방송사들은 자체의 기준에 따라 오후 5~6시

21) 통계청(1996), 「한국의사회지표」, p. 374.

22) 방송위원회(1997), 「청소년 TV시청행태조사연구」, 「청소년TV 시청행태조사연구종합토론회 자료집」, p. 31.

를 어린이 시간대, 오후 7~8시를 청소년 시간대로 정하고, 이 시간대만 피하면 폭력, 선정장면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청소년의 TV접촉실태를 상정하여 분석하면 문제가 있다. 송경희는 폭력 선정 장면은 방송 전 시간대에 퍼져있고, 초, 중학생들은 심야에도 시청하는 빈도가 높다고 분석한바 있다. 초등학생의 TV 시청률은 6~7시와 8~9시에 33%가량으로 가장 높았고 밤 9~11시에도 18~28%로 상당히 높게 조사되었다. 또 중학생은 청소년 중 TV를 가장 많이 보는 계층이었다. 이들은 오후 6~11시 사이에 25%내외의 비율로 대체로 고르게 시청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고등학생은 입시준비 등의 이유로 시청률이 그리 높지 않았다. 한편 방송편성의 내용은 폭력, 선정장면이 밤 10~11시 사이에 가장 잦았는데 폭력은 18%, 선정적 내용은 25%였다.²³⁾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초등학생을 포함한 우리의 청소년들이 폭력과 선정적 내용에 심각한 정도로 노출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 신문은 TV가 청소년에 불건전한 문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개연성을 사실로 소개한 바 있다. “방송사 경영진은 시청자 사과나 연출자 경고를 받아도 시청률만 높으면 된다는 노골적인 태도다. 여기에 여론이나 심의 규정은 아랑곳없다는 제작자들의 의식 결여와 배짱주의가 프로그램 곳곳에 말도 안 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폭력을 휘두르다 자동차에 사람을 매달고 가는 드라마, 나이 어린 사회자가 진행중 소주를 들이킬 때마다 이를 진짜라고 알리는 코미디, 10대들의 광란을 부추기는 쇼, 성행위 표현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주부 프로그램, 연예인들의 사용이 되버린 토크 쇼”²⁴⁾라면서 방송사의 자성을 촉구한 바 있다.

또 다른 신문에서는²⁵⁾ 사실을 통해 TV가 건전한 가족의 오락적 기능을 외면하고 청소년의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들을 꼬집었다. 즉, “주말의 TV 황금시간대는 모든 방송 채널이 쇼 등 오락프로로 채워지고 있다. 10대 20대 초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이들 프로들은 거의가 성인 유흥장을 방불케하는 요란한 조명과 가수 무용수들의 퇴폐적 율동으로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가 민망한 내용들이다”. 사실 우리의 방송이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많은 프로그램

23) 조선일보, 1997년 11월 27일자, 1997년 11월 21일 개최 “방송프로그램 질 향상에 관한 토론회” 분석기사.

24) 조선일보, 1997년 5월 11일자, 사설.

25) 동아일보, 1992년 11월 11일자, 사설.

들이 성을 상품화하여 시청률을 의식한 광고수익을 위한 상업주의가 팽배해 있다. 이러한 청소년 위주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마치 선진국의 보편화된 조류인 것처럼 오도하거나 마치 문화적 자유주의의 발로인 것처럼 불건전을 조장하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장르 구분으로 청소년문화에 좋지 않은 영향의 사례를 살펴보자. 드라마의 소재나 내용이 청소년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다. 조선일보 사설(1998. 4. 16)에 의하면 우리의 드라마가 불건전한 내용이 많다고 우려했다. “주된 소재가 불륜이고 해결 방법은 이혼이며 그 와중에 아이들은 배우 공 신세가 되는 것이 기본 도식이다. 대학생들이 등장하는 시트콤도 고민은 찾아볼 수없이 놀자관에 연애 풍속도만 그린다.” 또 “문제의 해결방식이 노력과 그 과정이 생략되고 허구적이고 환상적인 상황만이 전개되어 이를 보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소비 지향적인 사고를 조장한다”면서 부작용을 경계하였다. 비정상적인 가족간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증폭시키는 경우가 허다하고 귀신과 미신이야기, 보통사람부터 유명인사에 이르는 휴먼스토리마저 조작, 극화시켜 진실을 희석시키는 행태를 꼬집어 비난한 바 있다.

코미디 프로그램도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예전대, 코미디가 선정적인 저속한 장면, 잦은 폭력적 행동이나 분위기, 지나친 말장난, 별 의미 없는 주제, 유치한 유행어나 유행성 행동, 외래어 등을 남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언어유희만을 모방하고 저질적인 손찌검이나 불손한 언행 등을 따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간헐적으로 방송사내의 PD들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결의가 모아지기도 한다. 그들은 방송 출연자들의 의상, 두발상태에 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방송언어를 순화하고, 폭력·선정적인 장면을 자제하면서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주체성을 부각시켜 청소년들이 건전한 한국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결의를 하기도 했다.²⁶⁾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의 실태와 청소년들의 시청행태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26) 광명체(1993), “국내 청소년 대상 방송의 현황과 과제” 『청소년과 방송』, 한국언론연구원, pp. 130-131.

토론회에서 청소년의 방송환경에 관하여 교사, 프로그램 제작자들의 의식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개선방안까지 설문하여 발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들은 “방송이 지나친 시청률 경쟁을 지양하여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양하고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유익하면서 재미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야 한다”²⁷⁾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가정의 소중함’, ‘도덕적 가치’ 등이 부각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이 바람직하며 특정 장르만을 제작하는 패턴을 벗어나서 다큐멘터리, 문화·예술, 토론 프로그램, 청소년드라마 등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방송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원칙과 각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각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토론자들은 “청소년이 주로 시청하는 6~8시의 프로그램 제작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의상, 헤어스타일, 말투 등의 통제가 절실하며, 무엇보다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폭력장면 재연에 의한 경각심 유발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경향이 있다”고 했다. 재연 장면이 부정적 폭력의 모방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봉사활동 내용을 방영하거나 현장체험 등을 소재로 하여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건전성을 추구해야하며, 위인들의 전기를 재미있게 구성하여 방영한다거나 인기가 있거나 유명하지 않으나 진솔하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예컨대 인간 삶에 관한 사실적 프로그램의 방영을 권장하는 등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또 드라마나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들의 문제만을 제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해결방법까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바 있다. 이들의 생각이 방송 프로그램을 실제 생산하는 제작자들이 안고 있는 고충과 방송국의 현실적 문제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답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제시라고 평가될 만하다.

이와는 반대로 같은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대상 방송 제작자들의 응답은 첫

27) 방송위원회(1997), 「청소년TV 시청형태조사연구 종합토론회」, 1999년 11월 21일 개최보고서, p. 66.

째, 채널별·프로그램별로 다양한 재미를 추구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드라마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 드라마에 대한 투자와 기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지원과 연구개발 여건조성,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 조성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프로그램의 성질별 혹은 장르에 대한 청소년과의 연관을 중요시하는 교사들의 응답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보인다. 즉, 그들의 프로그램 생산을 위한 토대와 기반조성을 위한 경제적 혹은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그룹이 청소년 의식에 위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근절이 중요하다는 당위를 담고 있음은 고무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IV. 청소년 방송의 개선방안

우선, 청소년을 위한 방송의 절대 시간을 늘려야 한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가족성 방송, 사회의 건전한 기풍을 마련할 수 있는 교양방송의 확대가 요망된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문제를 포괄하는 다큐멘터리의 편성, 우수한 내용을 담은 교육적 만화영화 등과 같은 유익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시간을 늘려야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 방송시간의 대응편성 즉, 타방송사에서 방송하는 것을 의식하여 비슷한 내용을 같은 시간대에 방송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대응방송을 하게 될 경우 선의의 긍정적 경쟁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 시청률을 의식한 불리적인 경쟁, 자극적인 경쟁을 함으로써 프로그램 질의 저하를 가져올 소지가 농후하기에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교육의 킬리킬럼에 미디어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 방송은 시청자 즉, 국민을 대상으로 상품을 기획하는 매체이다. 상품을 판매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국민의 기호와 관심을 간과할 수 없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시청자의 감각적 취향을 무시할 수 없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발하거나 소위 튀는 내용을 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연유로 제작되고 방영되는 프로그램 내용 모두가 마치 사회에서 용인되고 보편화된 일상의 것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의 정확한 이해와 정보취득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방송에 대해 필요이상으

로 의존, 동경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방송 매커니즘을 정확히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방송의 본질을 이해하고 속성을 알게 된다면 방송의 긍정적인 것만 수용할 수 있는 변별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해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정치적 현상 혹은 환경을 수용해나가는 이른바 교육의 정치사회화 기능과 같은 것이다. 다시말해 미디어교육이란 방송제작 과정을 이해하고 방송이 추구하는 의도를 알도록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이다. 미디어 교육이 형식교육의 전형인 학교에서 컬리큘럼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있다. 교육과정으로 확정, 고시²⁸⁾되기까지는 대략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된다. 우선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해 미디어교육 당위성을 주장하는 단체, 학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도입을 위한 전향적 인식을 갖고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음은 청소년방송 관련 법률의 엄정한 적용과 벌칙 강화를 제언한다. 방송법 및 동시행령에서 규정한 방송편성 기준의 엄격한 준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편성비율을 엄격히 규정해 놓았는데도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그 이유는 위반시의 벌칙이 미비하다는 것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법 개정을 통하여 이에 따른 엄격한 벌칙조항을 두어 오락의 과다 편성을 방지하고 나아가 교양편성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프로그램의 접촉을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공성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음란, 폭력 등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역시 벌칙 조항의 강화를 통한 이행준수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청소년을 위한 전문 방송매체의 신설이 필요하다. 청소년만을 위한 특화된 방송채널을 확보함으로써 방송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은 물론, 건전한 기풍조성을 더욱 공고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각 분야별로 청소년 영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며 이는 곧 청소년 매체산업의 육성, 나아가 청소년 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 또 청소년을 위한 영상물 제

28) 일반적 교육과정 확정, 고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개정 기본 계획수립 → 연구개발의 위탁 → 개기기초연구 → 총론 개정시안의 개발 → 심의회구성, 운영 → 총론 1차 확정 → 각론 개정안 개발계획 수립 → 교과별 각론 개정 시안 연구 개발 → 교과별 교육과정 심의회 구성, 운영 → 교육과정(총론, 각론)정안 작성 → 개정안(총론, 각론) 확정 고시.

작 혹은 판매점의 출현이 용이하기에 사회가 청소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후원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V. 나오는 말

전술한대로 방송은 한 나라의 문화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으며 여론형성 도구로서의 기능이 있다. 방송매체는 광파성의 특성이 있어 사회 각 분야의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이 있다. 더욱이 아직 정신적 성숙의 정도가 완전하지 않는 청소년에게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청소년문화의 건전화를 위해 방송은 언제나 그들의 의식과 희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그들의 고민과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방송이 청소년을 위한 특별하고도 획기적인 배려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방송시간이나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는 방송환경이 열악하다. 방송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창출은 방송자체의 앞날을 위해서나,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을 위해서나, 우리 나라의 건전한 기풍조성을 위해서나 나아가 우리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나 매우 중요하고 가치로운 것이다. 방송사의 최대 수용자 즉, 고객은 청소년이라 할 수 있다. 가까이서 청소년의 태도와 언어생활에 있어 건전함을 유도할 수 있고, 자신으로부터의 강제함과 의지의 공고함을 가르치는 내면화를 성숙시키며, 도덕적이거나 이성적 판단의 제고를 전파할 수 있는 것이 방송의 기능이다. 방송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소유하게 하고, 이들의 건전한문화를 창출하게 하는 것이 곧 방송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등식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당위를 전제로 방송의 사명감이 더해질 때 우리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과 진정한 나라의 발전을 가져 올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곽명세(1993), “국내 청소년 대상 방송의 현황과 과제” 『청소년과 방송』, 한국언론연구원.
 도종수(1994), “청소년생활 실태 및 의식조사연구”, 『한국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

년개발원.

문화체육부(1995), 「청소년 유해 영상매체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부.

문화체육부(1997), 「청소년백서」, 문화체육부.

박영상(1994), 「청소년의 문화풍속도」, 청소년대회의광장.

박의수(1995), “전전한 청소년문화의 방향과 사회 교육적 과제”, 「강남대학교 논문 제26집」, 강남대학교 출판부.

박형상(1994), “인쇄·영상물의 법제화 방안”, 「청소년유해·인쇄 영상물 규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방송위원회(1997), 「청소년TV 시청형태조사연구종합토론회 자료집」, 방송위원회.

안귀덕(1997), 「한국청소년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윤진(1991),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경자 외(1993), “청소년방송프로그램 현황 및 제작환경 연구”, 「청소년과 방송」, 언론연구원.

이돈희(1993), “청소년문화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 「통일로」.

이명숙(1996), 「청소년생활환경개선종합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정범모(1995), “미래의 인간과 교육”, 「교육난국의 해부」, 나남.

조은(1996), “뉴미디어시대의 청소년문화정책”, 「정책포럼 1996년 6월」.

최창섭(1997), “청소년 유해미디어 환경의 실태와 개선방안”, 「청소년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2집」,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통계청(1996),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한국언론연구원(1993), 「청소년과 방송」, 한국언론연구원.

Comstock, G.(1978), *Television and Human Behavior*, Columbia Univ. Press.

James S. Coleman(1975), *The Adolescent Society*, New York Press.

Miller, J & Bersoff, D(1994), “Culture and Moral Jud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Neil J, Slakind(1985),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Wiley & Sons.